

# 무역기술장벽(TBT) 컨소시엄 출범

## 해외 기술규제 대응체계 전면 개편



무역기술장벽 (TBT : Technical Barriers to Trade)이란?

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기술규정·표준·인증 등을 적용하여 국가 간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 대응 체계를 업종별 단체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업 형태로 전면 개편하는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출범하였다.

그간 무역기술장벽 대응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('08.9)된 TBT 중앙사무국 위주로 수행해 왔으나, TBT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족 및 업종별 단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발굴과 규제분석이 미흡하였다.

특히, 해외 기술규제 대응이 대기업 분야 위주로 수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.

이번에 출범한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업종별 단체 및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해외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한다.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종별 단체는 TBT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신설·확충하여 규제 분석 및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시스템 마련한다. 기술·통상분야의 전문기관은 외국 기술규제의 타당성 및 국제규범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며, KOTRA는 해외 거점기관으로서 정보입수 및 현지 규제기관 방문을 통한 대외 협력을 담당하기로 하였다.

국가기술표준원은 컨소시엄을 통하여 TBT 정보 입수에서 수출기업 의견수렴, 규제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까지 모든 과정에서 업계와의 양방향 소통과 현장밀착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. 또한, 중소기업 관련 기술규제의 발굴을 확대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.

\* 시험연구기관(KEA, KTR, KTC 등)에 중소기업 애로해결 창구를 마련하고, 기술규제 사전대응 및 수출지원과 관련한 맞춤형 현장지원을 확대

한편, 기술규제의 투명성이 낮은 BRICs, 아세안, 중동 등의 개도국과 TBT 정보교환 및 현안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 전략적 수출지역은 양자간 협력창구를 신설하고, 주요 수출국의 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TBT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다.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통상·협상전략 및 무역통계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TBT 담당관 및 업종별 단체의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금번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정비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〈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구성 〉

업종별 단체	전문기관
전기전자	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기산업진흥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조명연구원 전지협회
기계금속	건설기계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냉동공조협회
화학/ 생활	정밀화학산업진흥회 화장품협회 완구공업협동조합 섬유산업연합회 식품산업협회 타이어공업협회
기술·통상	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연구원 산업연구원 시험연구원 (KTR, KTC, KCL)
해외거점	KOTRA

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정책과 (02-509-7258)